

2014학년도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6A

접동
접동
아우래비 접동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읍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A]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 보라
오오 불설위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 되던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夜三更)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옮겨가며 슬피 읍니다.

-김소월, 「접동새」-

31. 윗글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애상적 어조를 통해 비극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명령형의 문장을 사용하여 주체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행의 길이에 변화를 주어 리듬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 ⑤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두 연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32.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연에서 '누나'의 울음은 '누나'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다.
- ② 2연에서 3연으로 전개되면서 '누나'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③ 3연에서는 2연의 '누나'와 관련된 사연이 제시되고 있다.
- ④ 4연에서는 '누나'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직설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4연에서는 '우리'라는 시어를 통해 화자와 '누나'의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김소월의 시에서 한(恨)은 서로 모순을 이루는 두 감정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이 끝내 풀리지 않을 때 생긴다. 예컨대 한은 체념해야 할 상황에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거나, 자책과 상대에 대한 원망(怨望)이 충돌하여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을 때 맺힌다.

- ① '차마' 못 잊는다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죽어서도 동생들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지 못하여 생긴 것 같아.
- ② '시샘'이 '시새움'으로 변주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의붓어미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 ③ '이 산 저 산' 떠도는 새의 모습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모든 희망을 버리고 방황하며 체념하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 ④ '야삼경'에도 잠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자신의 심정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지 못하여 생긴 것 같아.
- ⑤ '오랩동생'과 이별하는 심경이 표현된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홀로 가족을 떠나는 행위를 자책하고 있을 때 맺힌 것 같아.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06A [41~43]

"사부는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나이까?"

노승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잊기를 잘한다.'는 말이 옳소이다."

양 승상(양소유)이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숙한 듯하였다. 문득 깨달아 능파 낭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⑦ 내가 지난날 토변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法座)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 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도다.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 승상을 총명하다 하였는가?"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소유는 십오륙 세 이전에는 부모의 슬하를 떠난 적이 없고, 십육 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직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으니, 동으로 연나라에 사신으로 가고 토변을 정벌하려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京師)를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언제 사부와 함께 십 년을 상종하였으리요?"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면 저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노승이 이르기를,

“이는 어렵지 않다.”

하고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돌난간을 두어 번 두드렸다. 갑자기 네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각 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하다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正道)로 소유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환술(幻術)으로써 회롱하시나이까?”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낭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데, 향로에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자신의 몸을 보니 백팔 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 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전히 소확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위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性眞) 행자(行者)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鄧都獄)*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가,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입상(出將入相)*, 공명신퇴(功名身退)*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허룻밤의 꿈이로다.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여 처소에 나아가니,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

육관 대사가 큰 소리로 묻기를,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 보니 과연 어떠하더냐?”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 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서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허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 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나이다.”

대사가 말하기를,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간여할 바가 있겠느냐? 또 네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고 하니,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네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하였도다. 옛말에 ‘㉢장주(莊周)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고 하니, 어느 것이 거짓 것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니,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

성진이 이에 대답하기를,

“제자 성진은 아득하여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사오니,

㉣사부는 설법(說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 김만중, 「구운몽」 -

* 풍도옥 : 지옥을 이르는 말.

* 출장입상 :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됨.

* 공명신퇴 :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낸 후 물러남.

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적 독백을 통해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 ③ 묘사의 방식을 통해 장면이 전환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구체적 시대 상황을 설정하여 내용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개입하여 과거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2.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성진은 육관 대사의 가르침을 따르려 한다.
- ② 노승은 양소유가 자각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 ③ 성진은 꿈속의 노승이 육관 대사임을 알게 된다.
- ④ 양소유는 팔 낭자와 함께 꿈에서 깨어나고자 한다.
- ⑤ 성진은 양소유로서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구운몽」은 ‘회의(懷疑)와 부정(否定)’의 과정을 통해서 서사가 구성된다. 작품 초반에 성진이 세속에 호기심을 갖는 모습은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결말에 이르러 다시금 불교적 삶을 택하는 모습은 세속적 삶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마지막 육관 대사의 성진에 대한 가르침은 참·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세 번의 ‘회의와 부정’은 작품에 순차적으로 등장하여 「구운몽」의 주제를 한층 심화시킨다.

- ① ㉠은 ‘첫 번째 회의와 부정’을 경험하기 전의 일이다.
- ② ㉡은 ‘첫 번째 회의와 부정’과 ‘두 번째 회의와 부정’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 ③ ㉢은 ‘두 번째 회의와 부정’을 경험한 직후의 일이다.
- ④ ㉣은 ‘세 번째 회의와 부정’ 단계의 핵심 내용을 보여 주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 ⑤ ㉤은 ‘두 번째 회의와 부정’에서 ‘세 번째 회의와 부정’으로 나아가고자 함을 의미한다.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그도 그럴 것이다. 미친 채하고 딱목판에 얹드려진다는 섰으로 미친 채하고 어리광 비스뚤한 수작을 하거나, 스라소니 행세를 하거나 하여, 어떻게든 저편의 호감을 사고 저편을 웃기기만 하면 목전에 닥쳐오는 펄박은 면할 것이다. 속으로는 요놈 하면서라도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면 당장의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공포(恐怖), 경계(警戒), 미봉(彌縫), 가식(假飾), 굴복(屈服), 도회(韜晦)*, 비굴(卑屈)……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요, 현명한 처세술이다. 실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에 더득한 것이 아니요,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전제 밑에서 더께가 앉고 굳어 빠진 껍질이지마는,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들어 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생활이다.

“어떻든지 그저 내지인과 동등한 대우만 해 주면 나중엔 어찌 되든지 살아갈 수 있겠소.”

청년은 무엇에 쫓겨 가는 사람처럼 차 안을 휘휘 둘러다 보고 나서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서 다시 말을 잇는다.

“가령 공동묘지만 하더라도 내지에도 그런 법률이 있다 하면 싫든 좋든 우리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조. 하지만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유풍이 있지 않습니까? 대관절 내지에도 그런 법이 있나요?”

의외에 이 장돌뱅이도 공동묘지 이야기를 꺼낸다. 나는 아까 형님한테 한참 설법을 듣고 오는 길에 또 이러한 질문을 받고 보니, 언제 규정이 된 것이요 어떻게 시행하라는 것인지는 나로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까짓 것은 아무렇게나 상관이 없는 일이지마는, 아마 요사이 경향에서 모여 앉으면 패들 문젯거리, 화젯거리가 되는 모양이다. 나는 한번 껄껄 웃어 주고 싶었으나 그리할 수는 없었다.

“일본에도 공동묘지가 있나우.”

나 역시 누가 듣지나 않는가 하고 아까부터 수상쩍게 보이던 저편 뒤로 킁킁한 구석에 금테를 한 동 두른 모자를 쓴 채 외투를 뒤집어쓰고 누웠는 일본 사람과, 김천서 나하고 같이 오른 양복쟁이 편을 둘러다 보았다.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총독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나에게는 염려되는 것이었다.

“정말 내지에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지만 행세하는 사람아 좀 다르겠조?”

“그야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든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장을 지내기 때문에 타고 남은 …… 아마 목구멍 뼈라든가를 갖다가 묻고 목패든지 비석을 세운다우. 그러지 않아도 살아 있는 사람도 터전이 좁아서 땅 조각이 금 조각 같은데, 죽는 사람마다 넓은 터전을 차지하다가는 이 세상에는 무덤만 남고 말지 않겠소, 허허허.”

나는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도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지면을 축소하고 남은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고 마누 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그리구서니 자기의 부모나 처자를 죽었다구 금세루 살리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대대로 내려오는 제 집 산소까지를.” 이 사람은 나의 말이 옳다는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대도 반대를 한다.

“화장을 지낸다기루 상관이 뭐겠소. 예전에 애급이라는 나라에서는 왕후장상의 시체는 방부제를 쓰고 나무 관에 넣은 시체를 다시 석관까지에 튼튼히 넣어서 피라미드라는 큰 굴 속에 묻어 두었지만, 지금 와서는 미이라밖에 되지 않고 만

것을 보면 죽은 송장에겐 능라주의(綾羅紬衣)*를 입히고 백평, 천 평 되는 땅에다가 아무리 굳게 파묻기로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동상을 세우면 무얼 하고 송덕비를 세우면 무엇에 쓴다는 말이오.”

내 앞에 앉았는 장꾼은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네에, 그런 것이 있어요?”

하고 멀거니 앉았다.

“하여간 부모를 생사장제(生事葬祭)에 예(禮)로써 받들어야 할 거야 더 말할 것 없지마는, 예로 하라는 것은 결국에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소? 그러니 공동묘지 법이란 난 아직 내용도 모르지마는, 그것은 별문제로 치고라도, 그 근본정신은 생각지 않고 부모나 선조의 산소치레를 해서 외화(外華)나 자랑하고 음덕(蔭德)이나 바란다는 것도 우스운 수작이란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소. 지금 우리는 공동묘지 때문에 못살게 되었소? 엄동 밑에 쉬스는 줄은 모른다구, 깎살릴* 것 다 깎살리고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도 죽은 뒤에 파묻힐 곳부터 염려를 하고 앉았을 때인지? 너무나 얼빠진 늙둥이 수작이 아니오? 허허허.” 나는 형님에게 하고 싶던 말을 장돌뱅이로 돌아다니는 이 자를 붙들고 한참 푸념을 하였다.

- 염상섭, 「만세전」 -

* 도회: 재능이나 학식 따위를 숨겨 감춤.

* 능라주의: 비단옷과 명주옷.

* 깎살리다: 재물이나 기회 따위를 호지부지 다 없애다.

4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징적 배경을 통해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② 냉소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④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⑤ 인물들의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주제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42. ‘공동묘지 법’과 관련한 인물들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공동묘지 법’ 시행에 따른 ‘화장’의 제도화를 우려하고 있다.
- ② ‘나’는 ‘공동묘지 법’의 시행 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③ ‘나’는 ‘공동묘지 법’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 ④ ‘장돌뱅이’는 ‘공동묘지 법’의 목적이 묘지를 없애 집터를 넓히는 데 있다고 믿고 있다.
- ⑤ ‘장돌뱅이’는 ‘공동묘지 법’이 ‘애급’의 관습을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 흥미로워 하고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1920년대 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염상섭은 개인의 발견과 현실 인식이라는 소설의 근대적인 특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인칭 시점을 적용한 소설을 통해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을 모색하여, 개성의 표현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였다. 나아가 그는 생활 현실에 근거한 문학으로 관심을 확장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문예는 생활의 기록이요, 흔적이요, 주장이다. 생활에 대한 염상섭의 새로운 인식은 생활의 표현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려는 근대 문학의 정신에 접근하고 있다.

- ① 시속의 '처세술'에 대해 성찰하여 평가한 점을 통해, 생활의 문제에 대한 작가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를 옹호한 점을 통해, 개인의 발견에 관한 작가의 의식을 이해할 수 있겠군.
- ③ '지금의 우리 생활'을 '봉건적' 의식과 문화에 견주어 문제 삼은 점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려는 작가의 시각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일상적 관심사로 오르내리는 '화젯거리'를 이야기한 점을 통해, 생활의 흔적을 기록하려는 작가의 노력을 살필 수 있겠군.
- 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가 서술하도록 설정한 점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는 문학의 방식을 모색하는 작가의 관심을 찾아볼 수 있겠군.

그의 고객은 왜정 시대는 주로 일본인이었고 현재는 권력층이 아니면 재벌의 생수에 드는 측들이어야만 했다.

㉠그의 일과는 아침에 진찰실에 나오자 손가락 끝으로 창틀이나 탁자 위를 훑어 푸테안경 속 움푹한 눈으로 응시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이때 손가락 끝에 먼지면 문으면 불호령이 터지고, 간호원은 하루 종일 원장의 신경질에 부대껴야만 한다.

아무튼 단골 고객들은 그의 정결한 결백성에 감탄과 경의를 표해 마지않는다.

1·4후퇴 시 청진기가 든 손가방 하나를 들고 월남한 이민국 박사다. 그는 수복되자 재빨리 셋방 하나를 얻어 병원을 차렸다. 그러나 이제는 평당 오십만 환을 호가하는 도심지에 타일을 바른 이중 양옥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 전문의 외과 외에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개인 병원을 집결시켰다. ㉡윤영은 각자의 호주머니 생숙이었지만 종합 병원의 원장 자리는 의 것이 자기가 차지하고 있다.

이민국 박사는 양복 조기 호주머니에서 심팔금 회중시계를 꺼내어 시간을 보았다.

두 시 사십 분!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와의 약속 시간은 이십 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계에도 몇 가닥의 유서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이민국 박사는 시계를 볼 때마다 참말 '기적'임에 틀림없었던 사태를 연상하게 된다.

왕진 가방과 함께 38선을 넘어난 피란 유물의 하나인 시계. 가방은 미군 의사에게서 얻은 새것으로 갈아매어 흔적도 없게 된 지금, 시계는 목숨을 걸고 삶의 도파행을 같이한 유일품이요, 어찌 보면 인생의 만여기기도 한 것이다.

밤에 잘 때에도 그는 시계를 머리맡에 풀어 놓거나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버려두지 않는다. 반드시 풀어서 등기 서류, 저금 통장 등이 들어 있는 비상용 캐비닛 속에 넣고야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또 그럴 만한 연유가 있었다. 이 시계는 제국 대학을 졸업할 때 받은 영예로운 수상품이다. 뒤편에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후 삼십여 년,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은 변하여 갔지만 시계만은 옛 모습 그대로다. 주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얼마나 변한 것인가. 이십 대 흥안을 자랑하던 젊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머리카락도 반백이 넘었고 이마의 주름은 깊어만 간다. 일제 시대, 소련군 점령하의 감옥 생활, 6·25 사변, 38선, 미군 부대, 그동안 몇 차례의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인가.

‘월삼* 십칠 석.’

우여곡절 많은 세월 속에서 아직도 제 시간을 유지하는 것만도 신기하다. 시간을 보고는 습성처럼 제각제각 소리에 귀 기울이는 때의 그의 가느다란 눈매에는 흘러간 인생의 측도가 서리는 것이었고, 그 속에서는 각모(角帽)와 쓰메에리(목단이) 학생복을 벗어 버리고 신사복으로 갈아입던 그날의 감회를 더 옥새롭게 해 주는 충동을 금할 길 없는 것이었다.

(중략)

“아마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모두들 야단법석이에요…….”

숨을 헐레벌떡이며 이야기하는 혜숙의 말에 이민국 박사는 아무 대꾸도 없이 눈만 껌벅이며 도로 앉았다. 여러 날째 라디오에서 오늘 입성 예정이라고 했으니 인제 정말 오는가 보다

싶었다.

혜숙이 내려간 뒤에도 이민국 박사는 ㉣한참 동안 아무 거동도 못 하고 바깥쪽을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는 움푹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벽장문을 열었다. 안쪽에 손을 뻗쳐 액자들을 끄집어내었다.

國語常用(국어*상용)의 家(가).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어 둔 것을 그동안 깜박 잊고 있었다.

그는 액자를 뒤를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모조지를 빼내어 ㉤글자 한 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어 꼼꼼히 찢었다.

이 종잇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몇 몇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에 스쳐갔다.

환자도 일본말 모르는 측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의 관계는 물론 집 안에서도 일체 일본말만을 써 왔다. 해방 뒤 부득이 써 오는 제 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 표현에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마누라의 술선수범하는 내조지공도 컸지만 애들까지도 곧잘 지켜 주었기에 이 종잇장을 탄 것이 아니던가.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큰 경사나 난 것처럼 기뻐했었다.

“참고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야 얻을 수 있겠소.”

하던 국민총력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치하 소리가 떠올랐다.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아이들을 소학교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 것인가.

- 전광용, 「꺼삐딴 리」 -

* 월삼: 미국 시계 회사 '월삼'.

* 국어: 일본어를 가리킴.

34.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역전적 시간 구성을 통해 인물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감각적인 수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적인 지성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사소한 일도 쉽게 지나치지 않는 빈틈없고 까다로운 인물을 보여 준다.
- ② ㉡: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물의 사려 깊은 자세를 보여 준다.
- ③ ㉢: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 기쁜 마음을 감춘 채 사태를 주시하는 주인공의 침착한 태도를 보여 준다.
- ④ ㉣: 시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
- ⑤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아이들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자상한 모습을 보여 준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전광용의 「꺼삐딴 리」는 일제 강점기부터 6·25 한국 전쟁 이후까지 격동기를 살아온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소재들은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거나 사건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독자에게 인물에 대한 부가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작품 이해를 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① ‘왕진 가방’은 38선을 넘어온 피란 유물로서 유랑 생활의 고단함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의미를 형상화한 소재이다.
- ② 인생의 반려로 비유된 ‘시계’는 역사적 흐름을 한 인물의 삶에 담아 표현해 줄 수 있는 작품 구성의 주요한 장치이다.
- ③ ‘비상용 캐비닛’은 주인공의 성격을 형상화해 주는 소재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주인공의 주도면밀함을 보여 주는 사물이다.
- ④ ‘신사복’은 주인공이 사회생활의 시작 단계에서 가졌던 희망찬 기대를 표상하는 소재이다.
- ⑤ ‘라디오’는 소련군의 입성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전달하는 소재로, 주인공이 새롭게 직면하게 된 변화된 정세를 제시해 준다.

37. ㉔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고진감래(苦盡甘來)
- ② 내우외환(內憂外患)
- ③ 맥수지탄(麥秀之嘆)
- ④ 사생결단(死生決斷)
- ⑤ 생사기로(生死岐路)

백선군이 잠깐 주막에서 조는데 ㉠문득 숙영남자가 꿈에 피를 흘리며 방문을 열고 들어와 선군의 곁에 앉아 슬프게 울며 말하기를,

[A] “남군이 입신양명하여 영화롭게 돌아오시니 기쁘기 측량 없사오나, 첩은 시운이 불행하여 세상을 버리고 황천객이 되었습니다. 전에 남군의 편지 사연을 듣사온즉 남군이 첩에게 향한 마음에 감격하오나, 첩은 천생연분이 천박하여 벌써 유명을 달리하였으니 구친의 혼백이라도 한스롭습니다. 첩이 원혼이 된 사연을 아무쪼록 깨끗이 풀어 주시기를 남군께 부탁하오니, 남군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억울한 누명을 벗겨 주시면, 죽은 혼백이라도 깨끗한 귀신이 될까 합니다.”

하고 간 데 없었다. ㉡선군이 놀라 깨어 보니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심신이 떨려 진정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꼭질을 헤아리지 못하여 인마를 재촉하여 여러 날 만에 풍산촌에 이르러 속소를 정하였으나, 식음을 전폐하고 앉아 밤이 새기를 기다렸다. 문득 하인이 와서,

“상공(相公)께서 오셨습니다.”

하고 알렸다. 선군이 즉시 밖에 나가 부친께 문안을 드리고 방으로 피시고 들어가서 가내 안부를 여쭙었다. 상공이 주저하며 가족들이 잘 지낸다고 알리고, 선군이 장원하여 높은 벼슬을 하게 됨을 물어 기뻐하다가 이윽고 선군에게 은근한 말로,

“㉢장부가 출세하면 두 부인을 두는 것은 예부터 혼한 일이었다. 내 들으니 이 마을 임 진사의 딸이 매우 현숙하다 하기로 내가 이미 구혼하여 임 진사에게 허락을 받았다. 이왕이 곳에 왔으니 내일 아주 성례하고 집으로 돌아감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권하였다. 선군은 숙영남자가 꿈에 나타난 뒤로 반신반의하여 마음을 진정치 못하던 차에 부친의 이런 말을 듣고 생각하되, ‘㉣남자가 죽은 것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나를 속이고 임 남자를 취하게 하여 혼날을 도모하고자 함이로다.’ 하고 이에 아뢰되,

“아버님 말씀은 지당하시나, 제 마음이 아직 급하지 아니합니다. 나중에 성혼하여도 늦지 아니하오니 그 말씀은 다시 이르지 마옵소서.”

하였다. 상공은 아들이 변심치 아니할 줄 알고 다시 말하지 못하고 밤을 지냈다. 첫닭이 울자마자 선군은 인마를 재촉하여 길에 올랐다.

(중략)

㉤선군이 소매를 걷고 빈소에 들어가 이불을 헤치고 보니, 남자의 용모가 산 사람 같아서 조금도 변화가 없었다. 선군이 부촉하여 이르기를,

“백선군이 왔으니, 이 칼이 빠지면 원수를 갚아 남자의 원혼을 위로하리라.”

하고 몸에서 칼을 빼니, 칼이 문득 빠지며, 그 구멍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나오며,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다.”

세 번 울고 날아갔다. 다시 파랑새가 한 마리가 또 나오며,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다.”

세 번 울고 날아갔다. 그제야 선군이 시비 매월의 소행인 줄 알고, 화를 이기지 못하여 급히 밖에 나와 형구를 벌이고 모든 노복을 차례로 신문하였다. 간악한 매월이 매를 건디지 못하여 승복하여 울며 가로되,

“상공께서 숙영남자를 의심하시기로 제가 마침 원통한 마음이 있던 차에 때를 타서 감히 간계를 행하였으니, 함께 일을 꾸민 놈은 돌이로소이다.”

하거늘, 선군이 크게 노하여 돌이를 또 때리니 돌이가 매월의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노라 승복하였다. 선군이 이에 매월을 죽여 숙영남자를 위한 제물로 삼고 제문을 읽었다.

[B] “성인도 속세에 노닐고, 숙녀도 험한 구설을 만났은 예부터 없지 않았으나, 남자같이 지극 원통한 일이 어디 다시 있으리오. 슬프다! 모두 나 선군의 탓이니 누구를 원망하리오. 오늘날 매월의 원수는 갚았으나 남자의 화용월태를 어디 가 다시 보리오. 다만 선군이 죽어 지하에 가 남자를 좇을 것이니, 부모에게 불효가 되어도 어찌할 수 없으리로다.”

제문 읽기를 마치며 신체를 어루만지며 통곡한 후 돌이를 본읍에 넘겨 먼 절도로 귀양 보내게 하였다.

이때 상공 부부는 선군에게 바로 이르지 아니하였다가 일이 이같이 탄로 남을 보고 도리어 무색하여 아무 말도 못하기를 선군이 화평한 얼굴로 재삼 위로하였다.

-작자 미상, 「숙영남자전」-

41. [A]와 [B]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꿈’이라는 상황을 활용하여 원혼의 간절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는 ‘제문’이라는 형식을 활용하여 위로의 진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③ [A]는 원혼이 산 자에게 보내는 전언이고, [B]는 산 자가 원혼에게 보내는 응답이다.
- ④ [A]와 [B]는 상대방의 처지를 환기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다.
- ⑤ [A]와 [B]는 자신의 회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42. 윗글의 [매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매월이 죄를 자백한 것은 선군의 회유 때문이다.
- ② 매월에 대한 신문은 비현실적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 ③ 매월은 숙영남자가 누명을 쓰게 되는 간계를 꾸몄다.
- ④ 매월이 간계를 꾸미게 된 배경에는 자신의 원통함이 자리잡고 있다.
- ⑤ 매월이 돌이를 사주하여 꾸민 일은 상공의 집안에 갈등을 초래하였다.

2014학년도

[31~33] 2014.06A ☆☆

<보기>부터 확인해보면 되겠죠?

—〈보 기〉—

김소월의 시에서 **한(恨)**은 서로 모순을 이루는 두 갈
정이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이 끝내 풀리지 않을 때
생긴다. 예컨대 한은 체념해야 할 상황에서도 미련을 버
리지 못하거나, 자책과 상대에 대한 원망(怨望)이 충돌하
여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을 때 맺힌다.

김소월의 시에 나오는 ‘한’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마 이 작품은 ‘한’
의 정서가 짙게 깔려 있을 거예요. 이 내용 잡아둔 채로 지문 읽어
봅시다.

접동
접동
아우래비 접동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 보라
오오 불설워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 되던 오래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夜三更)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읊아가며 슬피 읊니다.

— 김소월, 「접동새」 —

실전 독해

<보기>와 연계하니 너무 쉬운 작품이네요. 누나의 죽음을 위로하

면서 이로 인해 촉발되는 ‘한’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이
정도만 읽으면 되겠죠?

사후적 독해

접동
접동
아우래비 접동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읊니다.

‘접동’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우는 ‘누나’
의 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접동새’였으니, 이 ‘접동’
의 울음은 곧 ‘누나’의 울음을 의미하나봅니다. ‘접동=누나’라는 도
식 잡아 두고 계속 읽어봅시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 보라
오오 불설워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접동’으로 표현된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다고 합니다. 화
자는 죽은 ‘누나’가 ‘접동새’가 되었다는 상상을 바탕으로 작품을
쓴 것이네요.

아홉이나 남아 되던 오래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夜三更)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읊아가며 슬피 읊니다.

— 김소월, 「접동새」 —

‘누나’가 우는 이유는 ‘동생’ 때문입니다. ‘동생’을 잊지 못해 이 산
저 산 읊아가며 슬피 운다는 작품이네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31.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89%	2%	2%	4%

- ① 지문 전체의 내용을 봤을 때, 애상적 어조와 비극적 분위기는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죠?
- ② 명령형의 문장이 어디 있나요...? 절대 허용할 수 없네요.
- ③ ‘진두강’이라는 구체적 지명이 나오고 있죠? 누나가 살다가 죽은 곳이니 ‘향토적 정서’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구요.
- ④ 행의 길이는 자꾸 변하고 있어요. 역시 허용할 수 있겠네요.
- ⑤ 2연~3연에서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이라는 시구가 반복되고 있죠? 두 연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으니 유기적 연결은 당연히 허용할 수 있겠죠.

32.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91%	2%	3%	1%

- ① 2연에서 누나의 ‘울음’을 제시한 뒤 3연에서 ‘누나’의 이야기가 제시되고 있으니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죠.
- ② 누나에게 부정적인 태도요...? 절대로 허용할 수 없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누나의 죽음을 안타까워만 하고 있으니까요.
- ③ ‘의붓어미 시샘’이라는 구체적인 사연이 등장하고 있죠?
- ④ ‘오오 불설위’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정도는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⑤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나’와 친밀한 누나의 관계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겠죠.

33.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9%	12%	6%	4%	9%

- ① ‘차마’ 못 잊는 건 누나의 심리가 맞고, ‘잊지 못한다’는 반응에 초점을 맞추면 ‘동생들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지 못해 생긴 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쉽게 허용이 되네요.
- ② ‘시샘’이 ‘시새움’으로 변주되고 있으니 갈등이 깊어진다고 하는 건 충분히 허용할 수가 있어요. 영 그럼 답이 두 개인가요..?
- ③ ‘떠도는 모습’이라고 했으니 역시 또 ‘방황, 체념’을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 허용이 되는 느낌이에요.
- ④ 이건 좀 헛소리네요. ‘야삼경’에 잠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자는 ‘야삼경’에 이 산 저 산 떠돌아다니는 것이죠? 지문에 나온 적이 없는 말이니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 ⑤ ‘오래동생’과 이별하는 모습 나왔고, 이것 때문에 슬피 운다고 했으니 홀로 가족을 떠나는 모습 때문에 ‘한’이 맺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아니 4번을 제외하곤 모두 허용이 되네요. 그럼 답이 4개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선지들이 허용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는 뭘 확인하자고 했죠? 그렇죠. ‘상세한 내용일치!’ <보기>나 지문을 다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놓친 것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 이 생각을 하면서 <보기>를 봤더니, 여기서 말하는 ‘한’은 ‘모순된 감정의 갈등’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선지들을 다시 판단할 수 있겠네요.
- ① 죽었으니 ‘체념’해야 하는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체념’과 ‘미련’이라는 모순된 감정의 갈등이 ‘한’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겠네요.
- ② ‘의붓어미와의 갈등’은 ‘모순된 감정이 갈등하는 상황’이 아니죠?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없겠어요.
- ③ 역시 ‘방황, 체념’은 모순된 감정의 갈등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

습니다. 허용할 수 없었네요!

⑤ 마찬가지로 모순되는 감정의 갈등 상황이 없죠? 결국 답은 1번이었네요.

이 문제는 만약 <보기>가 없었다면 답이 4개가 될 여지가 충분했어요. 하지만 <보기>라는 슈퍼 갑의 존재로 인해 딱 하나의 정답만 가지게 되었네요. 문학 문제풀이의 기본 원칙이 잡히시죠? '주관적인 애매함'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선지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처음 문제를 풀 때부터 <보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1번을 답으로 고르셨으면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혹여나 저처럼 답이 여러 개라는 느낌이 드셨다면, 감으로 선지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보기>나 지문과의 '상세한 내용일치'를 따져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평가원이 꽤나 자주 사용하는 문학에서의 변별 포인트니까요.

핵심 point

-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근거'가 있어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닌, '지문의 내용'에서 나와야 합니다.
- ② 현대시 독해 : '실전'에서는 큰 틀만 잡고 읽은 뒤 선지 판단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독해를 진행하면 됩니다.
- ③ 상세한 내용일치 : 답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닌 눈을 이용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일치'를 기억하세요!

[41~43] 2014.06A ☆☆☆

〈보 기〉

「구운몽」은 '회의(懷疑)와 부정(否定)'의 과정을 통해서 서사가 구성된다. 작품 초반에 성진이 세속에 호기심을 갖는 모습은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결말에 이르러 다시금 불교적 삶을 택하는 모습은 세속적 삶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마지막 육관 대사의 성진에 대한 가르침은 참·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세 번의 '회의와 부정'은 작품에 순차적으로 등장하여 「구운몽」의 주제를 한층 심화시킨다.

'회의와 부정'이라는 구조를 통해 내용이 전개되나 봅니다. 그냥 이 정도만 잡고 넘어가셔도 좋고, 총 세 번의 '회의와 부정'이 어떤 내용인지 체크하고 지문에서 그 부분을 찾아 읽어도 좋겠죠. 일단은 전자의 입장에서 지문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부는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나이까?”

노승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평생 알고 지낸 사람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잇기를 잘한다.’는 말이 옳소이다.”

양 승상(양소유)이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숙한 듯하였다. 문득 깨달아 능파 낭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지난날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 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法座)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

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도다,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십 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 승상을 총명하다 하였는가?”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소유는 십오륙 세 이전에는 부모의 슬하를 떠난 적이 없고, 십육 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직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으니, 동으로 연나라에 사신으로 가고 토번을 정벌하러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京師)를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언제 사부와 함께 십 년을 상종하였으리요?”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상공이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면 저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노승이 이르기를,

“이는 어렵지 않다.”

하고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돌난간을 두어 번 두드렸다. <갑자기 네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각 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변하지 못하였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하다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正道)로 소유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환술(幻術)로써 희롱하시나이까?”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남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데, 향로에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누군가가 ‘사부’라는 인물에게 말을 걸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승’이 웃으면서 대답하고 있는데요. 다른 호칭이지만, 이 둘은 같은 인물임을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양 승상’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친절하게도 이 인물은 ‘양소유’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요. 둘의 대화를 들어보니, 지금 양소유가 꿈을 꾸고 있나봐요. 고전소설에서 지겹도록 등장하는 모티프죠? 그러면서 다양한 배경 묘사(제가 <> 표시한 부분들)를 통해 꿈에서 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에서 깬 양소유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자신의 몸을 보니 <백팔 염주가 걸려 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 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전히 소화상의 몸이요 전혀 대승상의 위의를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性眞) 행자(行者)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豐都獄)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가,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입상(出將入相), 공명신퇴(功名身退)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남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로다.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여 처소에 나아가니,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
 육관 대사가 큰 소리로 묻기를,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 보니 과연 어떠하더냐?”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서 윤

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 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나이다.”
 대사가 말하기를,
 “네가 홍을 타고 갔다가 홍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간여할 바가 있겠느냐? 또 네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고 하니, 이는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네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하였도다. 옛말에 ‘장주(莊周)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고 하니, 어느 것이 거짓 것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변하지 못하니,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
 성진이 이에 대답하기를,
 “제자 성진은 아득하여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사오니, 사부는 설법(說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 김만중, 「구운몽」 -

꿈에서 깬 양소유는 자신이 ‘성진’임을 깨닫고 스승인 ‘육관 대사’(앞에서 나온 ‘사부’겠죠? 이렇게 인물관계를 끊임없이 생각해주셔야 해요.)에게 가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처소’로 갔다는 장소의 변화도 체크해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육관 대사는 또 다른 물음을 던져요. 어느 것이 참인지 꿈인지 생각해보라고 말이죠! 이런 말을 들은 성진은 정신이 아득해지고 있습니다. ‘회익과 부정’에 대한 내용은 디테일하게 잡기 어렵지만, ‘꿈’을 기준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41.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	14%	67%	3%	8%

① 딱히 독백을 통해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지는 않죠? 대화와 성진 스스로의 ‘생각’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